

도교육청, '전북 청림 누리문화제' 참여

내일부터 3일간 열려
"지역주민·학생 참여 기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진행되는 '제3회 전북 청림누리문화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 청림누리문화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심이 돼 '청림한 우리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White(투명하게)-Blue(맑게)-Green(깨끗하게)' 등 3개의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북 공공기관 청림플러스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전공공사 등 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4곳과 전북도, 전북대학교병원 등 도내 기관까지 모두 7개의 공공기관이 함께 한다.

19일 개막식과 함께 청림樂 콘서트(국민연금공단), Clean건강상담(전북대학교병원), 청림직거래장터(농촌진흥청)를 진행하고 20일에는 퀴즈 풀이로 초등학생들의 청림 인식을 높일 '청림골든벨'(전주 민성초), 청소년 청림 인식 제고를 위한 '청림멘토링'(전주 동암고), '청림영양실용'(전북대학교병원), 20~21일은 초·중·고생을 위한 4D 청림영상 체험 '청림복색 농업체험'(농촌진흥청)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각종 전시와 함께 전주 시 일원에서 청림 캠페인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그간 청림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건강성을 높이는 본질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청림문화 정착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012년 이후 5년 연속 우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문 국무총리표창(201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2016)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림문화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학생안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필요"

김승환 교육감, 서울 상도유치원 같은 상황 발생하면 "법보다 긴급구조 먼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법을 초월하는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이나 공립유치원도

에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교육지원청은 (안전진단 등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안내한다. 이것은 법대로 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원인자 즉 시공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단 긴급구조를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만큼 법적 문

제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긴급구조에 들어가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면서 "민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땐 과감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유용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등을 구입했을 경우 실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관련자 모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이 시각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여러 저항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은성기자

백승우 교수, 협동조합 체계적 정리 서적 출간

저서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원칙과 과제' 펴내
협동조합 관한 가치·과제 등 모든 것 상세 수록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에 관한 가치와 원칙, 조직과 법규, 유형과 사업, 역할과 과제 등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백승우 교수는 전북대 출판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최근 발간한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원칙과 과제'란 제목의 저서를 통해 '왜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란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던져 주었다.

지난 2013년 12월 3,000개소에 달

했던 국내 협동조합이 2018년 5월 30일 현재 13,360개소로 크게 증가할 정도로 최근 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걸어온 역사와 정의, 가치, 관련 법규, 사례와 특징, 과제 등을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백승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어떻게 조합-원칙과 과제'란 제목의 저서를 통해 '왜 지금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란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던져 주었다. /김영태기자

스를 만들 것인지만 분명해야 한다"며 "낭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조인한다.

백 교수는 또 "동일한 목표 아래 다양한 참여 동기를 가진 조합원들이 모이고 모인 조합원들 모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 사업은 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협동조합은 설립된 이후부터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처럼 이 책은 협동조합의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성공적 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경영 노하우



등이 담겨 있어 이 분야의 학문 연구자들은 물론 협동조합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란 점에서 시선을 끈다. /김영태기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지난 15일 전북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주관 2018년 전북도 국제교류 페스티벌과 연계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사전 예선심사를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7개국 15명의 학생이 본선에서 자웅을 겨뤘다.

유학생들은 한국생활 적응기, 나의 소망 꿈 미래,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매력 등을 주제로 5분간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다양한 참가자들의 발표주제와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마주할 수 있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가 끝난 후 발표내용과 표현력 및 발표태도 등 총 100점 만점의 심사 기준을 토대로 수상자를 가려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에는 초급부문 자파리 압물 이하브(전북대/아프가니스탄) 학생이 수상한 것을 비롯해 중급 통미이 필라봉(원광대/라오스), 고급 토걸도르(원광대/몽골)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대회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지만 한편으로 한국어를 소중하게 대하는 유학생들의 모습에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제225차 월례연구발표회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 중점연구소가 오는 21일 원불교학을 연구하는 소장 학자 3명을 초청해 제 225차 월례연구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월례발표회에 이어 원불교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소장 학자들에게 2세기 원불교학의 방향을 묻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율해 원효학술상을 수상한 이병욱 박사가 원불교 무시선의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는 원광대 교무교육원 한덕관 교수가 비움공부에 바탕한 인성교육의 실천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관 교수는 15년 동안 원광대 도덕교육원에서 도덕성 함양을 위한 덕성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약산=우병희기자

전북학생들 과학토론 분야 '전국 최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서 대상 1·금상 2·은상 3·동상 3·장려상 2팀 쾌거

지난 8월 31일에 열린 2018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초·중·고 학생 11팀(22명)이 출전해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3팀, 장려상 2팀이 수상하는 등 쾌거를 거두었다.

제36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과학적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회로 융합과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기계공학 분야에서 전국 각시도 158팀 313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북대표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학교 예선, 시군대

회 및 도대회를 거쳐 오면서 상호협력력을 통해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

전북과학고(차이현,한승환)에서 과학토론 고교부 대상을 정음수성초(김현지,이기주)에서 융합과학 초등부 금상을, 전주온빛중(김경환,장민준)에서 기계공학 중학부 금상을 수상하였고 지도한 교사에게도 최우수 및 우수 지도교사상이 주어졌다.

이 의 수상에는 전주중(융합과학-김지현,이소희), 원광중(기계공학-임가람,황인유), 전주서신중(과학토론-주

정연,차이경), 동상에는 전북과학고(융합과학-강희준,장윤성), 백운초(항공우주-김영찬,한승민), 적상중(항공우주-변도현)이 입상하는 등 출전한 모든 팀이 수상했다.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은 "이번 대회에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운 자문지원 교원과 지도교사에게 감사드리며, 도내 학생들이 무한한 미래 발전 동력인 과학을 상상하고 즐기며 탐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